

HRI 체어퍼슨노트

CHAIRPERSON NOTE

2012.10.29 (통권423호)



경제이슈

美 주택시장 개선

3/4분기 경제성장률 1.6%로 하락

경영노트

절대 불확실성 시대 성공전략

사회 트렌드

뤄관(裸官)

저널 브리프

미래 산업 메가 트렌드, 5C

洗心錄

싸이의 새옹지마

□ 美 주택시장 개선

- 주택 건설, 주택 판매 그리고 주택 가격 상승 등 주택시장 개선
 - 주택 건설 : 주택시장의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9월 신규 주택 건설이 8월에 비해 15% 상승하였고, 전년 동월대비 34.8% 급등
 - 주택 매매 : 9월 신규주택 판매는 8월 대비 5.7% 증가하였고, 잠정주택 판매지수가 8월 99.2p에서 9월 99.5p로 상승하며 17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
 - 주택 가격 : 평균 주택 가격은 2005년 11월 이래 가장 큰 폭인 11.3% 증가를 보였고, 8월 주택 가격지수도 전월대비 0.7% 상승
- 미국의 3차 양적완화에 따른 소비자 현금흐름 개선 등의 효과로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외경기침체, 재정절벽 현실화 우려, 그림자 채고 등의 불안요인으로 인해 미국경기회복을 낙관하기 어려움

□ 3/4분기 경제성장률 1.6%로 하락

-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국내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3/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1.6% 로 10분기 연속 하락
 - 소비 : 민간소비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와 가계 부채 부담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5% 증가에 그침
 - 투자 :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2.9% 감소, 건설투자는 -0.1% 감소
 - 수출 : 수출은 주요국 경기둔화로 대외 수출여건이 악화되어 전년동기대비 2.6% 증가에 그침
- 국내총생산은 향후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기저효과 등으로 다소 회복될 전망이나, 회복속도는 미국 재정절벽, 유로존 사태, 중국 성장 정도 등 대외여건에 따라 결정

□ 절대 불확실성 시대 성공전략¹⁾

- 최근의 급변하는 경제 환경은 ‘불확실성’ 시대를 뛰어 넘어 예측이 불가능한 ‘절대 불확실성’ 시대에 진입했음을 의미
 - 20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위기에는 주기가 있었고 일부 예측도 가능했으나 이제는 호황과 불황, 위기와 기회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름
 - 최근 15년 사이에 발생한 아시아 외환위기, 9·11테러, 리먼사태, 유럽 재정위기 등은 경기 사이클이 짧아지고 예측이 불가능한 절대 불확실성 시대의 도래를 방증
- 이런 상황에서는 경영 환경 예측 역량도 중요하나, 실시간 시장감지 능력 강화, 유연성 등 민첩한 대응 역량이 더욱 중요

<절대 불확실성 시대 성공전략>

	내 용
시장 감지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 불확실성하에서는 고객 수요의 특성과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장감지(market sensing) 역량이 필수적 • 애플은 과거 스티브 잡스 개인의 직관적, 직감적 판단이 시장감지 역량의 주요 부분을 차지 • 삼성은 시스템적인 시장감지 역량 확보를 위해 생산망관리(SCM)등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여 시장정보를 빠르게 수집, 활용하는 기업으로 거듭남
유연한 사업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사슬 일부에 역량을 집중하고 다른 영역은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사업모델이 확산 • 비지오(Visio)는 델(Dell)의 신축적인 PC 사업모델을 HDTV 사업에 적용하여 경쟁사 대비 15~20%이상 높은 가격 경쟁력을 달성
통제된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 속도를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느냐가 수많은 기업의 지속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력 발휘 • 초기의 페이스북은 서비스에 대한 엄청난 수요 증대 압박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스스로를 통제하여 매우 신중하게 서비스 범위를 확대 • 페이스북 이전에 존재했던 수많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수요와 서버·DB운영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패
민첩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예측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시장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 역량 강화, 시나리오 경영, 행동계획 수립 등 전통적인 경영기업들은 한계에 직면 • 경제 예측에 대규모 투자를 해오던 수많은 투자은행 중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상하여 파생상품투자 손실을 최소화한 은행은 골드만삭스 한 곳에 불과

1) ‘불확실성과 싸우면 진다...민첩하게 대응하라’(매일경제신문, 2012.10.12)를 요약정리함.

□ 뤼관(裸官)²⁾

- 최근 중국 원자바오 총리 일가가 27억 달러의 재산을 모았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와 함께 중국에서 다시 부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이와 관련 ‘발가벗은 관리’란 뜻의 뤼관(裸官)이란 단어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음
- 뤼관(裸官)이란 중국에서 부패로 모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 부인과 아이들을 미리 국외로 내보낸 채 홀로 생활하는 관료를 말함
 -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 감찰부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5~2005년 재직한 공무원 중 118만 명의 부인과 자녀가 해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2003년까지 당국의 처벌을 피해 해외로 도주한 공무원은 4000여 명으로, 이들이 해외로 갖고 나간 돈은 50억 위안(약 8786억 원)에 달함
 - 중국 언론들은 뤼관들이 1년에 해외로 불법 유출하는 돈이 2000억 원에 이른다는 추산을 내놓았음
- 뤼관들이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이유는 부패 때문임
 - 부패 관련 감찰이 진행될 조짐이 있으면 언제든 해외로 도망가 살 수 있음
 - 설령 자신이 도피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가족은 유복한 삶을 살 수 있음
 - 중국 정부는 2010년 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뤼관에 대한 대책을 내놨는데, 가족이 해외에 있는 공무원을 특별 관리하거나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임
- 하지만 중국 언론들은 정부의 단속의지 자체에 의구심을 나타냈음
 - 은퇴후 해외에서 풍족한 삶이 보장되는데 승진에 지장을 받는 것이 대수냐는 것임

2) ‘나관(裸官)권력 이용해 돈 빼돌려 들통나면 해외로 도주’(한경, 2012.10.29)을 요약 정리함

□ 미래 산업 메가 트렌드, 5C³⁾

■ 최근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5가지 소비자 행동 트렌드가 형성

- ① 휴식(休) :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레저·오락 등으로 마음을 안정
- ② 소통(桶) :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획득함
- ③ 자아(我) : 가족의 크기가 축소되면서 자신의 행복을 제일로 여김
- ④ 공감(共感) : 감성적 측면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
- ⑤ 소(小) : 고령화·저성장·조기퇴직 등의 영향으로 적게 쓰기 위해 노력

■ 변화된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생겨난 5가지 산업 트렌드의 변화를 '5C'로 정리

- ① 클레버(Clever : 스마트) : 합리적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기본 기능에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을 결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예) 지능형 센서, 스마트 섬유, 씨티팜
- ② 컨버전스(Convergence : 융합) : 기술·제품·서비스 등 전 분야에서 이종기술 및 산업간 재조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상품·시장을 창출
- 예) 스마트카, 바이오칩, U-Health
- ③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 소통) : 쌍방향 소통의 활성화로 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기업에서 소비자로 전환되면서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 니즈를 탐색
- 예) SNS마케팅, 빅데이터
- ④ 콘텐츠(Contents : 소프트웨어) : 제품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자체보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졌으며 개방형 프로그램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
- 예) 모바일 콘텐츠, 어플리케이션
- ⑤ 클린(Clean : 녹색·웰빙·바이오) : 기후악화, 환경오염, 고령화 현상은 웰빙식품에 대한 니즈와 자원재활용 시장의 성장을 촉진
- 예) 유기농 농산물, 고도 수처리 사업, 그린시티, 도시광산

3) '5C에 주목하라...' 융합'이 정답이다'(한경비즈니스, 2012.10.31) 참조

□ 싸이의 새옹지마

국제가수 싸이(PSY)만큼 드라마틱한 인생도 흔치 않을 것이다. ‘강남스타일’로 일약 세계적인 스타로 떠오른 싸이의 삶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多事多難)이다. 공인으로서 재기하기 쉽지 않은 위기들을 수차례 겪으면서도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대통령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인간만사 새옹지마(人間萬事 塞翁之馬). 중국의 유안(劉安)이 편찬한 철학서 『회남자(淮南子)』의 「인간훈(人間訓)」에 나오는 말이다. 인생에 있어서 길흉화복(吉凶禍福)은 변화무쌍하여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길이 흉이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되기도 함을 이르고 있다. 중국 북쪽 변방에 사는 노인은 기르던 말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나자 낙심하였는데, 얼마 뒤에 그 말이 또 한 마리의 말을 데리고 오자 매우 좋아하였다. 이후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 절름발이가 되면서 다시 낙담하지만, 덕분에 아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목숨을 구하게 됨으로써 노인이 다시 기뻐하였다는 일화다.

개인적인 삶도 그렇지만 기업도 마찬가지다. 한때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1등 기업이 한순간에 도태되기도 하고 신생 기업이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한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성장을 지속하는 기업들의 생존 전략을 보면 변화에 능동적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주력 사업 분야를 완전히 바꿔 세계적인 기업으로 변신한 애플, 디지털 시계라는 대세에 적응하면서도 전통 기술을 이어오며 명품 시계 브랜드로 자리 잡은 스와치의 사례 등이 그것이다. 안팎으로 기업 경영이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한발 앞선 통찰력으로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창조적인 혁신과 끊임없는 기술 개발,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한다면 그 또한 기회가 될 것이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훌륭한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 법이다. 싸이는 그래서 더 재미가 있다.

시련이란 진리로 통하는 으뜸가는 길이다.

- 바이런(Lord Byron)